

## / 지역 단신 /

## '섬진강 환경지킴이' 발대식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섬진강의 수질보전 활동을 위해 지난 23일 광성 하수처리장에서 섬진강 환경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섬진강 환경지킴이는 섬진강 전 구간을 7개 구간으로 나눠 하천 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 계도 및 정화활동을 비롯해 취약시간대 야간 순찰, 행락철 대 국민홍보 활동 등을 전개한다.

이날 발대식 행사는 광성 유치원 어린이들이 마련한 환경 음악회와 광성 보존회의 길놀이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다. / 광성=김계중기자 kjkim@

## 영광소방서, 문화재 대상 소방점검

영광소방서(서장 김경안)는 화재 발생 시 취약한 관내 주요 목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소방점검을 실시하는 등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영광 소방서는 이를 위해 지난 22일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하고 법정 소화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소규모의 사찰 문화재인 연등사 등에 소화기 33대를 기증했다.

이 가운데 대상(주), 보호주(주) 등 제조업체에서 820여 톤을 사주고, 600여 톤은 자가 소비할 예정이어서 광양생산성이 약 640여 톤이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강진읍사무소 부실시공 논란

오는 7월 말 준공을 앞둔 강진군 강진읍사무소 신축공사에 단열재로 사용된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이 규정제품인 1호 제품이 아닌 2호로 설계됐고, 그나마 불량제품이 KS(한국 표준규격)제품으로 둔감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읍 신청사를 총 공사비 39억 원을 들여 강진읍 남성리 12-4번지 일대에 대지면적 5천912㎡(1천788평), 연면적 1천781㎡(588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이전·신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D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신청사 설계때 에너지소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열재를 관공서 건물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1호(밀도 30kg/m³)가 아닌 2호(밀도 25kg/m³)로 설계됐고, 그나마 사용된 2호 제품도 함량이 미달하는 불량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장에서 군 담당 감독관과 시공회사 감독의 입회하에 신청사 건축에 사용된 스티로폼 2호 샘플(90cm x 180cm)을 채취, 국가공인 기관에 의뢰한 결과 1단계 낮은 3호품(20kg/m³)

단열재·건축자재 등 부적격 제품 사용 드러나  
제품성능 승인·품질 확인·시험절차도 형식적

불량 단열재를 사용해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 강진읍 신축청사.

m³)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설계회사 관계자는 "강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날씨가 온후한 관계로 2호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현장에 반입된 건축자재는 일정한 품질 시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감리회사와 군 담당감독관은 납품회사

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만 믿고 제품성능에 대한 승인 및 품질확인, 시험절차를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품질검사를 다시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 강진=이병철기자 mood@

## “복·분·자 구입해 주세요”

## 순창군, 과일생산 농가돕기 총력 나서



순창군은 최근 수확기를 맞아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분자 재배농가를 위해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함께 순창 복분자 사주기 운동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순창지역은 현재 1천150농가에서 422ha의 복분자를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수확량은 2만100여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상(주), 보호주(주) 등 제조업체에서 820여 톤을 사주고, 600여 톤은 자가 소비할 예정이어서 광양생산성이 약 640여 톤이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군은 우선 공무원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가 나서 400여t를 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군

신하 직원 1인당 20kg이상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 10t을

시출 계획이며, 관내 유관기관 및 각 사회단체에서도 약 6t을, 농협군지부 및 지역농협에서도 60t을 시출 계획이다.

또한 각 읍·면별로 재경·재인천 향우회에 각 2t 이상

씩 등 20여t를 판매할 예정이며, 2개반 10명으로 영남지역

등 타지도 판매 주진반을 구성 현지를 방문해 10여t에 대

한 판매활동에 나선다. / 순창=이홍식기자 hslee@

## 편안하고 깨끗한 고급객실!

## 그 명성 그대로—

-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하여!
- 편리함에서 경제성에서 혁신한 선택
- 카페숍, 와인 BAR, 세계각국 Wine 전시
- 도청광장, 광주역에서 7분 거리

## 25년 고객사랑!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전화 ☎ (062) 525-2111~5 (구. 광주시청 및 은은관)

## 100주년 장흥초교 본관 건물 신축

## 26억여원 투입 3층 규모

된다는 것.

시공사는 (주)우미건설이 맡아 오는 2020년까지 전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상환받는 조건으로 순수민간자본으로 건립된다.

25일 장흥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로 101년째 역사를 지닌 장흥초등학교의 본관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총 25억8천500만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800평) 22간 규모로 이달 말 착공해 내년 7월초 준공목표로 건립

지난해 10월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를 치른 장흥초등학교는 현재 42 학급에 1천256명이 재학중이며 지난 1905년 개교해 도내 조등학교 가운데 네번째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대도시 공략 나선 '함평천지한우'

## 25일 서울 여의도에 매장 열어

## 전남도 '한우 명품화사업' 개막

400여 두를 출하하게 됐고, 출하되는 소는 시장가격보다 35만 원을 더 주고 매입하게 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00년도부터 자체 운영해 오던 '함평천지한우'를 지난 2004년부터 지역 대표 한우브랜드로 지정하고 품질 고급화 및 균일화, 규모화, 마케팅 활성화 등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집중 지원해왔다.

전남도는 지역 대표 한우명품브랜드로 지난해까지 순한한우와 함평천지한우 2개 브랜드를 지정·육성하는데 이어 금년에도 담양죽양한우, 영암매력한우 2개 브랜드를 지정했다.

/ 충청기자 redplane@

전남도는 이번 판매장 개장으로 연간

## ‘화순 신활력 혁신 강연회’

## 동원 시스템즈 서두칠씨 초청

화순군과 전남도 생물산업 연구센터는 최근 군 신관회의실에서 군 공무원, 각급 기관·사회단체 임직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두칠(주) 동원 시스템즈 부회장을 초청해 '성공적인 경영혁신의 조건'을 주제로 '제 5차 화순군 신활력 혁신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서 부회장은 혁신을 돋는 21세기 조직문화로 분석된다.

화순군은 혁신을 강조해 ▲공부하는 문화 ▲인간을 존중하는 문화 ▲변화에 앞서고 도전하는 문화를 강조하고, 성공적 혁신추진 모델로 정보공유·비전 제시·리더의 솔선수법 등을 인정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 화순=조성수기자 css@



##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십분

##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 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 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개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기업체인 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가공인중개사

☎ (02) 34-8216 훈 011-609-0896

(광주제주부)

상가부지 및 삼가부지

총평면적 50평 4층건물 26평

교로면적 110평 4층 27평

교로면적 70평 2층 20평

운영면적 25평 3층 24평

운영면적 25평 2층 20평

운영면적 25평 2층 20평